

나눔터



차례

1996년 상담소는.....	2
이렇게 생각한다 성폭력특별법 이대로 좋은가.....	3
여기는 상담실.....	5
특집 성공한 음란통신은 처벌할 수 없다?.....	8
이런일을 했습니다.....	9
기획 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 그 효과는?.....	10
조사연구부.....	11
길을 따라서.....	12
몸이야기.....	13
성문화 읽기.....	14
여성계 소식.....	15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우편번호 137-600
 일반상담 02-529-4271~2 위기상담 02-573-1888
 사무전화 02-576-7128, 575-0980 팩시 02-576-7127

1996년, 상담소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1996년 개소 5주년을 맞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내담자 지원의 질적 향상, 2.조사연구의 활성화, 3.재정적 자립을 올해의 활동목표로 삼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상담소 인력의 애정과 관심을 한데 모아 뜻한 바 모든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1996년 월별 활동계획

1월 신년자문위원 모임 (1.24)
EZE 감사
1995년 재정감사 (1.27)
열린터 홍보
열린터 퇴소자 집단상담



3월 8기 상담원교육 시작(3.11.~4.15.)
나눔이 모집, 교육
토요법률상담 전체모임
지킴이(야간상담원) 모집홍보
열린터 자원활동가 프로그램 팀 모임

2월 정기총회(2/10)
토요법률상담 분석시작
열린터 특강
8기 상담원 모집
『자라나는.....』 재발간 작업 시작
나눔터 제18호 발간
PC통신 가동
정신과팀(가칭) 전체 모임

4월 개소5주년 기념 행사 및 자료집 발간
지킴이(야간상담원) 면접, 교육

7월 EZE 감사
위기상담 내담자용 소책자 발간작업 시작
상담소 전체 MT

5월 운영위원회
8기 상담실습교육
의료자문위원 모임
지킴이(야간상담원)교육 계속
청소년성폭력 예방비디오 제작 시작
『자라나는.....』재발간
『나눔터』 제19호 발간

6월 지킴이(야간상담원) 실습
219차 정신대 수요시위 (6.12)
열린터 내담자 집단상담 실시

10월 운영위원회
9기 상담원 교육 계속
상담소 이사
지킴이(야간상담원) 면접, 교육
후원의 밤 행사

8월 『나눔터』 제20호발간
위기상담 내담자용 소책자 발간
법정지원팀 토론회

9월 9기 상담원 모집, 교육
지킴이(야간상담원) 모집
열린터 내담자 야외 소풍

11월 9기 상담원 실습교육
성폭력 추방주간 기념 행사 (비디오 시사회)
『나눔터』 제21호 발간
정신과팀(가칭) 전체 모임

12월 지킴이(야간상담원)실습
한해보내기 모임
1996년 평가, 1997년 계획 회의



성폭력 특별법 이대로 좋은가

지난 1년 반 동안 시행된 성폭력특별법을 돌아볼 때, 고무적이고 ^가 긍정적인효과를 얻고 있는 부분 못지 않게 우리의 현실을 ^가 좇아가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 미비한 점들이 속속 지적되고 있다.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 현실을 반영하는 틀이 되어야 하고, 인간생활에 있을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힘과 사회악을 가려내어 징계, 처벌하는 것이 그 고유의 기능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개정, 보완되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임 순 영
한국성폭력상담소 전 총무

“의붓딸을 성폭행한 아버지를 성폭력특별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12살 난 의붓딸을 다섯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얼마전 이같이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 199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무색케 하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지적과 법조문 해석에 충실한 올바른 판결이라는 평가로 그 의견이 나뉘고 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은 하나의 판례가 되어 앞으로 의붓아버지에 의한 성폭력사건의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제기^가한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존속 등 연장의 친족이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존속 등 연장의 친족이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으로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존속 또는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을 포함한다.

문제의 초점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에 대한 해석과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민법과는 달리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제한했다는 것에 모아지고 있다.

민법 제768조에 의하면 존속은 혈족에 한하여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의무(義父)는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민법 제777조에서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혈족이 아니라 인척에 해당하는 의무는 친족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이제 의무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사실상의 관계’의 인정은 반인륜적 범죄의 근절을 위한 의지표현

이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특별법 조항에서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으로 제한한 만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은 혈연관계에 의한 존속 가운데 혼외출산 등으로 법적 절차를 받지 않은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재혼 등 사회적 관계로 맺어진 존속관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실상 관계에 의한 존속’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벗어나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소제기전 고소를 취하해 강간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히고 있다.

결국 자연혈연관계에 초점을 맞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과 친족을 인정한 것이 된다. 그러나 딸이 자신이 어머니가 재혼한 사람과 서로 아버지와 딸로 호칭하고 실질적으로 부녀관계로 지내온 사이라면 굳이 혈통주의에 입각한 자연혈연관계에 얽매어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과 친족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 ‘그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법적용과 집행에 있어 혼란을 막고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거나, ‘친아버지나 의붓아버지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많으니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는 것이 입법취지라 해도 그러한 입법의도대로 법이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부류가 있다. 그러나 의무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이나 친족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확대해석이 아니라

반인륜적 범죄를 근절,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례를 보면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167%가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의한 것이며, 이중 79%가 의부(義父)에 의한 피해이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일반 형범에 근거하여 고소할 수 있을 뿐 보다 형량이 높은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가해자를 고소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짓밟힌 인권을 온전히 되찾지 못하고, 가해자는 솜방망이 법의 혜택을 누리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친족범위는 민법과 동일하게 해야

이 해석상의 문제점은 사실 제7조에서 친족의 범위를 민법의 규정보다 제한했기 때문에 생기는 논란이기도 하다. 친족 등에 의한 강간이 인류에 반하는 범죄이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특별법에 기중처벌을 두는 것인데, 구차하게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민법과 일관되게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개정하는 것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우생학적, 생물학적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춘수에 관계없이 동성동본 혼인을 금지하는 법의 정신(?)이 성폭력 문제에 외서는 춘수를 극도로 제한하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친고죄의 폐지 필요

성폭력특별법이 갖는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다. 여성단체들이 특별법 제정운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친고죄 폐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분적인 폐지에 그쳤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에서 친고죄의 전면 폐지가 얼마나 필요한지가 입증된 셈이다. 성폭력특별법에서는 기존형법과 마찬가지로 친고죄를 고수하며 신설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7조)과 장애인에 의한 준강간 등(제8조)만 친고죄를 폐지했다.

이번 사건에서 제7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 일반형법 중 강간죄나 미성년간음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를 취하하여 그것마저 불가능해 진 것이다. 만약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었다면 고소를 취하했어도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그 애초의 의도보다는 오히려 범법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재범을 양산하게 하는 친고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강간치사상 미수범에 대한 기중처벌 가능케 해야

성폭력특별법 제9조(강간 등 상해, 치사), 제10조(강간 등 살인, 치사)는 본법 제5조(특수강도강간), 제6조(특수강간), 제7조(친족관계 등에 의한 강간), 제8조(장애인에 의한 준강간 등), 형법 제297조(강간),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살해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에서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300조에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포함하여 명시하지 않은 관계로 미수범은 기중처벌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결국 강간은 미수에 그쳤지만 흉기를 들고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사람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미수범도 처벌하려고 한 본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위 조항은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자'로 바뀌어야 한다.

성폭력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침해죄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침해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여성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조에 관한 죄'로 두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은 여성의 성(性)을 침해하였다는 가해자의 행위만으로는 범죄행위가 되지 않으며, 정조를 지키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한 여성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폭력 피해자가 된다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그러나 사실 데이트중 강간이나 직장내 성폭력의 경우에 여성의 동의의사표현 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성폭력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결국 성폭력은 정조의 문제에서부터 인권, 자율성의 침해에 대한 문제로 '피해자의 대응'에서부터 '가해자의 행위'로 그 관점과 초점이 이동되어야 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시행된 성폭력특별법을 돌아볼 때,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부분 못지 않게 우리의 현실을 좇아가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 미비한 점들이 속속 지적되고 있다. 특정사안에 대한 입법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며 입법목적과 의도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조항 하나 하나는 입법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 현실을 반영하는 틀이 되어야 하고, 인간생활에 있을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힘과 사회악을 가려내어 징계, 처벌하는 것이 그 고유 기능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개정, 보완되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 위의 글은 「시민과 변호사」1995년 12월호(통권제23호)에 실렸던 것을 다시 게재하였음을 밝힙니다.

제8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성폭력 전문 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제8기 상담원 교육 프로그램은 성폭력에 대한 여성학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여성학강의, 그리고 본격적인 상담의 이론과 실재를 이해하기 위해 상담학, 상담실습과정이라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는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상담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전문상담원으로 자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짜임새 있게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그 실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배움의 성과를 직접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 상 : 초대졸 이상의 주부 및 일반여성 선착순 30명
- 기 간 : 1996년 3월 11일-4월 18일
- 시 간 : 매주 2회(월, 목) 오전 10시 30분 - 오후 30분
- 장 소 : 서초 종합사회복지관(전화:579-4783,4784)
- 수강료 : 8만원
- 입금처 : 국민은행 009-01-1176-632 한국성폭력상담소
- 농 협 037-01-194301 한국성폭력상담소
- 문의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전화:576-7128, 575-0980)



95 상담활동

일반상담

95년 1월~12월까지 상담활동 보고

본 상담소는 95년도 1년동안 2050회에 걸쳐 1238건의 상담을 받았다. 이중 성폭력 관련상담은 1021건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하였다. 강간은 전체의 55.2%로 564건이었는데 성인은 직장내 강간과 데이트강간,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많이 차지하였고 청소년과 어린이는 아는 사람, 특히 근친에 의한 피해가 많았다.

성추행은 전체의 40%로 408건이었는데 성인은 직장내 성추행과 성희롱이 많았고 어린이는 동네사람, 모르는 사람, 선배에 의한 성추행이 많았는데 주로 학교화장실, 학원가는 길, 가해자 집에 유인된 경우가 많았다.

남성피해는 대개 남아피해로서 국민학교 어린이에게 중학생이, 중고등학생에게 선배나 어른 남자가 성추행을 하는 사례가 상담되었다. 이 경우에는 여러명에게 당한다든가,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주변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었고 아들이진 부모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

아는 사람이 가해를 한 경우가 661건으로 전체의 64.8%를 차지하였는데 그 중 일반강간은 74%를 차지하고 있어 성폭력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라기보다는 아는 사람에 의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재상담은 213건이 812회에 걸쳐 상담이 지속되었는데 수사에서 재판까지의 과정을 법적지원한 사례와 어린이성폭력피해의 후유증이나 가족관계, 특히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표 1> 상담유형분류표

유형	가해자	피해자					소계	고소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성폭력 1021(100)	전범행 564 (55.2) 일반강간 525 (51.4)	친족 106(104)	아버지, 오빠	6	37	25	3	-	71(6.9)	6
			친, 인척	14	8	12	1	-	35(3.4)	3
		아는 사람 387 (37.9)	동네사람	15	9	16	3	-	43(4.2)	13
			데이트 상대	40	10	-	-	-	50(4.9)	2
			직장상사, 동료	82	9	-	-	-	91(8.9)	12
			교사, 강사	4	10	-	1	-	15(1.5)	1
			동급생, 선후배	7	14	-	1	-	22(2.2)	3
			기타	43	11	5	1	-	60(5.9)	13
		모르는 사람 120(11.7)	52	42	24	2	-	120(11.7)	22	
		미상 18(1.8)	13	3	1	-	1	18(1.8)	-	
	윤간 39(3.8)	21	16	2	-	-	39(3.8)	8		
	전추행 408 (40.0) 일반성추행 330 (32.4)	친족 39(36)	아버지, 오빠	1	10	3	3	-	17(1.7)	-
			친, 인척	5	3	7	7	-	22(2.2)	-
		아는 사람 274 (26.9)	동네사람	17	5	23	55	-	100(9.8)	18
			데이트 상대	6	1	-	-	-	7(0.6)	1
			직장상사, 동료	63	3	-	-	-	66(6.5)	9
			교사, 강사	4	5	10	2	-	21(2.1)	2
			동급생, 선후배	7	3	1	1	-	12(1.2)	-
			기타	19	1	3	5	1	29(2.8)	4
		모르는 사람 54(5.3)	21	2	15	16	-	54(5.3)	9	
미상 2(0.2)		-	-	1	1	-	2(0.2)	1		
강간미수 31(3.0)	22	5	3	1	-	31(3.0)	7			
언어추행 47(4.6)	45	2	-	-	-	47(4.6)	7			
남성피해 49(4.8)	15	27	6	1	-	49(4.8)	-			
계		522(51.1)	236(23.1)	157(15.4)	104(10.2)	2(0.2)	1021	134(13.1)건		
기타	성문제, 순결	39	13	2	2	2	58	1		
	인신매매	1	1	-	-	-	2	1		
	아내구타	10	-	-	-	-	10	1		
	혼인빙자	10	-	-	-	-	10	-		
	장난전화	13	8	-	-	-	21	-		
	기타	99	11	4	-	2	116	3		
계		172	33	6	2	4	217	6		
계		694	269	163	106	6	1238	140건		
재상담	강간	305	100	74	7	-	486	21		
	성추행	157	11	71	54	-	293	13		
	남성피해	1	5	-	-	-	6	-		
	기타	21	5	1	-	-	27	-		
계		484	121	146	61	-	812	34회		
총계		1178	390	309	167	6	2050	174(14.0)회		

<표 2> 내담자의 피해유형

피해유형	강간	윤간	강간미수	성추행	남성피해	기타	계
건수	525	39	31	377	49	217	1238

(성추행에는 언어추행, 음란전화 47건 포함)

<표 3> 피해자 연령분포

연령	0~7세(유아)	8~13세(어린이)	14~19세(청소년)	20세이상(성인)	미상	계
건수	106	163	269	694	6	1238

이런 사건들이 진행중입니다

- 제2의 변월순사건 -

지난 94년 10월말 하여인은 50대 남자가 동석하여 같이 노래방에서 놀고 저녁식사를 하고 함께 귀가하던 중 가해자의 숙소로 강제로 끌려가 성폭행의 위협을 받았다. 하여인은 바로 옆에 놓여있던 과도로 가해자의 어깨를 찌르고 강간을 모면하였는데 입원가로 중이던 성폭행범은 다음날 출혈과다로 사망에 이르렀다.

경찰과 검찰에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어나 공방을 하다가 불구속재판으로 1심에서 2년 6월의 선고를 받았다. 본 상담소에서는 1심판결 후 연결이 되어 항소심 재판에서 국선번호인인 이백수변호사를 도와 법정지원하고 있다.

선진외국보다 정당방위를 훨씬 엄격하게 적용시키는 우리나라 현행 법관행에서는 "강간당하는 것보다는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논리로 이사건을 과잉방어로 보고있다. 본 상담소는 성문화가 날로 문란해지고 범죄가 흉포화되어 성폭력범죄가 날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다치고, 장애자가 되고, 목숨을 잃는 등 피해여성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여성이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노력은 과잉방어로 지탄받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한 법정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 남아피해 상담 늘어 -

학교폭력의 실태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호기심을 나이 어린 남아에게 강제로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포르노 사진이나 비디오를 강제로 보게하고 그대로 하도록 강요한다거나, 눈을 가리고 성기를 빨게 한다든가, 심하게는 여러명이 강제로 항문성교를 하여 탈장까지 되는 사례가 상담되고 있다. 여성피해자들이 순결의 상실로 큰 후유증을 가지게되는 반면 남아피해자들은 약자로서의 열등감과 수치심에 시달리고 에이즈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비정상적인 자극으로 인하여 왜곡된 성인식과 과도하게 성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됨을 호소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연배가 위인 청소년이나 성인남자들이었는데 형법상 처벌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성교육과 교정작업이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다.

열린 문턱

근친 성폭력, 피해자 뿐 아니라 부모교육도 절실

7개월여간의 상담 끝에 세 아이를 데리고 열린터에 들어온 k의 어머니는 초라하고 지친 상태였다. 대부분의 근친성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의 어머니가 그렇듯이 자신의 딸들이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현실 앞에서 과감히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열린터로 오기까지 7개월 동안 아이들은 수차례의 성추행을 당한 것은 물론이다.

k는 5살때부터 3년간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그 이후 어린 동생 둘도 비슷한 성추행을 당했다. k는 안타깝게도 이미 아버지와의 성적 접촉이 익숙해져있어 열린터에 와서도 아버지가 하던대로 새벽에 잠이 깨면 동생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가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곤 했다. 동생도 이 상황과 익숙해져 있어 문을 열어주곤 했다.

근친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가해자인 아버지를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분노를 갖는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어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또한 K는 어머니로부터의 소외와 소원함을 겁내고 있었다. 열린터를 나가서 가족끼리 생활할 때에도 어린 k를 혼자 채우고 다른 가족 모두는 같이 잔다고 하는 데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소외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아버지에 대한 애착육구를 강화시키고 아버지와의 동일시 감정을 갖게될 수 있다고 정신과 전문의도 지적한다.

사실 이런 경우 어머니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데 k의 어머니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아마도 딸 아이도 원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과 편견이 어머니의 눈을 멀게한다. 어머니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와 좌절을 심어주게된다. 그래서 가해자에 못지 않은 원망과 분노를 어머니 대해 갖게되는 것이다. k가 동생과 성적 접촉을 시도할 때 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고통치고 때림으로써 k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k에게 더 큰 상처

를 주고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갖고 있는 성에 대한 태도가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k의 어머니의 경우 남편으로 부터 거의 강간에 가까운 성관계를 가져온 어머니로서는 성을 더러움과 혐오감의 연속선상에서 인식할 수 밖에 없고, 남편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딸에 대한 경쟁적 관계로 투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근친 피해자의 경우 당사자 뿐 아니라 부모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이다.

위기센터

피해자가 합의금의 일부 기증, 법정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활용키로...

95년 12월 29일 오후 3시 상담소에 전화벨이 울렸다. 위기상담이었다. 피해내용은 다음과 같다.

28일 저녁 직원회식 후 모두 술에 취했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른 여직원과 사장과 함께 호텔로 묵기로 했다. 사장이 전에도 이런 식으로 직원들과 어울렸으므로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 아침에 다른 여직원이 먼저 방을 나간 후 M은 사장에게 폭력으로 강간을 당했다. 가해자는 회사내 상황과 회사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M을 머물도록 강요했고 뿌리치는 M을 강제로 폭행했던 것이다.

첫 상담에서 상담원은 산부인과에서 증거채취 및 의료적 처치를 할 것을 요구했고, 당당해져야 함을 다시한번 당부했다. 이후 면접상담과 토요법률상담을 통해 고소를 결심하였고, 여직원 중에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내어 여직원회에서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지속적으로 사장과 의 면담을 통해 고소까지 가지 않고 합의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모두 3명이었고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

이러한 성공은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첫째, 상담원이 피해 후 혼란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심리적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히 도왔다. 둘째,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강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

하였다. 셋째, 적절한 시기에 산부인과 연계로 의료적 조치 뿐 아니라 토요법률상담을 통한 법적 조치를하였다. 넷째, 피해를 덮어주고 있던 또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내어 공동대처하였다.

이번 사건의 성공으로 인해 상습적이었

던 가해자를 응징하여 더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은 물론, 피해자들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당당함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후 막막하

되어주었다며 3명의 피해자는 상담소에 합의금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상담소를 방문하였다. 상담소는 피해자의 승리에 기뻐했다. 그리고 그들이 기부한 기부금의 일부를 법정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이런 비디오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어느누구라도 성폭력 피해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어린이와 예비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비디오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상황제시와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담은 살아있는 성교육의 장. 이 두편의 비디오를 활용해보십시오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비디오의 내용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실질적인 상황묘사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희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누구나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손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실었다.

대 상 : 여고 졸업반 학생, 예비 직장인, 남녀 직장인.

상영시간 : 30분

가 격 : 1만 8천원

기 획 : 한국성폭력상담소

제 작 : 파나비전

판 매 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내몸은 내가 지켜요

비디오의 내용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어린이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형극과 노래극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제시한다.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몸은 소중한 것이며, 내가 아끼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 상 : 유치원, 국민학교학생

상영시간 : 30분

가 격 : 1만8천원

기 획 : 한국성폭력상담소

제 작 : 파나비전

판 매 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비디오를 구입하려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우송료 2000원을 포함하여 2만원을 등기로 보내 주시면 입금이 확인되는대로 등기로 우송해 드립니다. (구입문의: 02-576-7128)

온라인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9-01-1176-632

농 협 037-01-194301

(받는곳 : 한국성폭력상담소)

내
몸
은
내
가
지
켜
요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성공한 음란통신은 처벌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것은?’

수수께끼의 묘미는 역시 힌트 원한다면 아래를 보라.

X같은 X야, XX짱어 버린다. 다시 이런 것 쓰면은 진짜 내가 가서 너 먹어버린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XX구멍, 후장구멍.’

이쯤되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답은 도대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폭력이자 직접적인 폭력보다 더한 너의 무형의 폭력인 ‘음란통신’이다.

앞의 힌트문은 성폭력상담소가 퍼내는 <나눔터>의 모 기자로부터 최근 심각해져가고 있는 음란통신(이제는 일반화된 음란전화에서부터 음란 컴퓨터통신, 최근에는 삐삐와 전화가 합쳐져 사람의 등을 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과 관련한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십일쯤 지나서 여성신문 앞으로 ‘때마침’ 도착한 통신편지의 내용이다.

YDYEOL(분명 다른 이의 ID를 도용했겠지만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 같아 밝힌다)로부터의 편지였다. 이전에도 더러 비슷한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원색적인 표현은 처음이었다. (당황했던 우리 직원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모르겠으나 대화와 토론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사회에서 문명의 이기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가감없이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너무 기가 막혀 웃을 수 밖에 없었던 사례 하나를 더 소개한다. 역시 신문사에서 겪었던 일이다.(신문사라 그런지 음란전화가 꽤 쇠도(?)한다고 해야 하나?) 마감중이라 야근을 할 때였다. 사진기자에게 호출을 했는데 잠시 후 전화가 왔다. 호출한 사람을 찾는다나? 당연히 상큼한 목소리로 “OO선배, 내일 사진촬영 알죠? 시간 잊지 마세요.”라고 할 밖에. 그런데 잠시 후 전화를 타고 전해진 말인즉슨, “사진 찍어주면 나랑 잘래?”

한바탕 욕을 퍼붓고 전화를 끊었지만 부클부클 끓는 속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음란통신의 문제는 이상의 경험이 신문사이기 때문에, 혹은 회사이기 때문에 많이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

는데 있다. 누구나 한두번쯤은 지하철에서의 기분나쁜 손길과 같은 음란통신의 피해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고 말하는데 있다.

그러나 더 크고도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어처구니없는 음란통신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소문(때로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우리앞에 다가오지만)만 체감할 뿐 가해자가 밝혀졌다는 소문은 커녕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공신력있는 조사하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간혹 나는 이렇게도 생각해 본다. 가령 남성들이 이렇게 직접적인 성희롱뿐 아니라 무형의 성희롱, 아니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조용하기만 할까?

전문가들은
통신기기의 생활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통신이
익명성을 보장하고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성범죄의
주요형태로 사회문제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김가은(가명, 대학교 3학년, ID는 마리)씨는 ‘한밤의 섹스’, ‘섹스교사’ 등 성인인 자신이 보아도 낮이 화끈거릴 정도의 노골적인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단지 ‘자신이 벗겨지는 듯한 느낌’의 개인적인 성희롱을 넘어 ‘성’ 자체를 사회적 노리개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김씨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통신회사의 답변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주부인 강효신씨도 “통신을 하다 내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게되면 대화가 서서히 ‘마흔이 넘으니 예전같지 않다’ 든가 ‘요즘은 아내가 뽀뽀를 하자고 해도 아무 생각이 없다’ 등으로 이어져 이럴 경우는 그냥 나오고 만다”며 현재로서는 이 방법밖엔 없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지난해 5월 여성신문은(미연방수사국이 대학교 한병을 체포한 사건을 기사화한 적이 있다.) 사건의 주인공은 컴퓨터를 통해 영적이코 끔찍한 포르노 소설을 쓴 대학생. ‘모범생’으로 알려져 있던 그는 미연방수사국의 몇달간의 추적수사 끝에 각 주사이에 납치, 상해의 위협을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규를 어긴 혐의로 구속됐다. 무분별한 성적환상이 바로 성적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으로 유명한 한 교수는 “포르노 소설을 읽고 쓰는 것 자체가 폭력행위에 해당하며 또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자신의 반경 안에서 이성에 대한 처벌행위, 폭행, 강간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극히 타당한 평가다. 그러나 눈을 돌려 우리 사회를 들여다 보면서 잊고 있던 사실 하나를 발견한다. “아참, 우리나라는 성공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나라였지.”

최근 국내 성범죄는 크게는 직접적인 성폭력에서부터 작게는 언어폭력, 전화폭력, 통신폭력 등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행태가 다양해지고 양적 팽창과 뚜렷한 음성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가들은 특히 통신기기의 생활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통신이 익명성을 보장하고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성범죄의 주요형태로 사회문제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직접적인 성폭력에도 헛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 거기다 통신회사의 경고문 발송-재발할 경우 경고문과 함께 ID 사용정지-등으로 이어지는 제재조치는 자구책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실효성에 많은 이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도 그나마 성폭력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인 성폭력특별법, 통신상의 음란물에 관한 법 등을 현실화하는데 비중을 둘 수 밖에 없다. 성인전용 채팅실 운영, 음란통신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장치 마련 등의 대안과 함께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제하는 관련법규를 마련해 건전한 통신문화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성을 상품화하고 저급한 놀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분노할 줄 아는 개인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성범죄의 근절을 이끄는 ‘작지만 의미있는 실천’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성희롱 추방을 위한 시민 문화제 및 걷기대회 개최

지난 95년 12월 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동송동 마로니에 공원 야외 무대에서는 성희롱 추방을 위한 시민 문화제 및 걷기대회가 있었다. 본 상담소 이외에 87개 여성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성희롱 대책 시민연대에서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현재 상고심 중에 있는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이 올바른 판결이 내려질 것과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희롱 문화를 추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상담소 가족들, 한해 보내기 모임

본 상담소의 모든 가족들이 모여 지난 95년 12월 16일 서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해 보내기 모임을 가졌다. 상담원, 나눔이, 지킴이, 이사, 자문위원, 상근자 등 50여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1년동안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96년 새로운 해를 기대하는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신년, 자문위원들의 만남과 화합의 자리

자문위원들의 신년 모임이 지난 1월 24일에 서울클럽 지리산에서 있었다. 이날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95년 한해동안의 활동을 평가하고 96년 활동을 계획하는 자리를 가졌다. 1부에서는 의료, 법률, 홍보출판, 연구, 재정 등 각 분야의 자문위원들의 활동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보다 전문적인 차원에서 각종 상담 및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논의들이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2부에는 화기애애한 만남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문위원은 105명이다.



96년 정기총회 열려

96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10일 본 상담소 회의실에서 있었다. 본 상담소의 회원들이 함께한 이번 총회에서는 95년 활동보고, 95년 결산 보고에 이어 95년 결산, 9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정관 처무규정 개정, 부소장 직제 도입에 따른 부소장 선출, 기존 직원 재신임 및 신규직원 채용 승인이 있었다. 부소장에는 그동안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장영복 선생님이 선출되었다.

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 그 효과는?

1월 초, 일간지에 제주도에서 돈을 주고 윤락행위를 한 남성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처벌 규정은 바로 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정부는 1월 6일에 새로 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발표했다. 언론에서는 이 법안의 특징으로, 기존에는 성을 파는 여성, 소위 매춘(賣春)여성들만 처벌해 왔지만, 이제 성을 돈으로 사는 매춘(買春)남성도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법에서 윤락행위의 상대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 구류등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또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 폭행이나 협박으로 윤락행위를 강요한 경우에는 최고 징역 5년이나 1천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사실상 개정되기 이전법에도 윤락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처벌을 가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 사실을 밝히는 언론의 보도는 거의 없었기에 이를 처음 신설된 조항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516이 일어났던 61년 11월에 군사정권의 사회정화 차원에서 제정된 법이었다. 이 구법에서도 윤락행위의 상대자는 3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등의 벌칙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몸을 파는 사람들만 처벌 또는 보호시설에 수용되었을 뿐, 상대방의 성을 돈으로 사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처벌은 커녕 돈으로 성을 사는 경험들이 각종 문학작품이나 사회 통념속에서, 성인이 되는 남성다운 행위, 낭만적인 한때의 추억으로 새겨져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윤락행위라는 것이 몸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되므로 양자를 다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야지만 여태까지는 파는 사람만 처벌해온 것이다. 이번의 개정법은 전문을 개정하고 벌금과 처벌기준을 높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벌써부터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직접 범법자를 잡고, 처벌을 해야하는 일선경찰관들이 이 법의 실행에 앞장서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는 돈을 주고 윤락행위를 했는지 그 증거를 잡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양자가 서로 부인하면 무죄가 되버리고, 일부 경찰은 남성들의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서인지 범법사실을 밝혀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자체가 남성중심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시각도 대두하고 있다. 바로 윤락행위에 대한 개념정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구법이나 개정법이나 금전 등의 이익을 받는 성행위(윤락행위)를 윤리의 타락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성을 파는 사람(여성)이 타락의 주체가 되고, 성을 사는 사람(남성)은 그 상대자에 불과하다. 돈을 미끼로

비열하게도 상대방의 몸을 사려는 행위가 타락의 주체가 되고, 그런 주체(남성)의 강요에 의해 성을 파는 사람(여성)이 될 수 있다는 정반대의 논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남성 중심의 일방적인 윤락행위 개념규정을 굳게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을 계기로 매춘(賣春)문제를 매매춘(賣買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점은 환영할만 하지만 여성은 성을 파는 주체, 남성(男)은 돈으로 성을 사는 대상이라는 매매춘의 구도자체가 우리 인식에 새겨져 있는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구도가 사회속에 존재한다는 것도 여성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일선경찰관들이 개정된 윤락행위 방지법의 실행에 앞장서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돈을 주고 윤락행위를 했는지 그 증거를 잡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일부 경찰은 남성들의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서인지 범법사실을 밝혀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매매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매우 경악했다는 사실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매매춘문제는 고질적이다. 이를 뿌리뽑기 위해서 법차원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더욱 시급한 것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성윤리의 철폐와 건강한 성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회운동이다. 법과 규제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사람의 원칙대로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방법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다음세대의 꿈많은 눈망울을 생각하면 해답은 더욱 확실하게 다가올 것이다.

나눔터/홍은정기자



<반쪽이 그림판>

왜 가해자 연구가 필요한가?

이경미 (조사연구부 실장)

인간적인 일에 연루되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해답 없이는 성폭력의 발생과 그 후속 처리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었다.)

「가해자가 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열거할 수 있다. 남성에게 강요되는 힘자랑 곧 남성다움, 그 남성다움을 공인된 방식으로 확인할 도리가 없는 그래서 뒤로 쳐진 남성들의 불만과 좌절감, 여성을 좌시하여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다는 짓밟아도 된다는 여성경시 사고체계, 혹은 여성에 대한 적대감, 좌절된 다른 시점

의 다른 욕구의 표현방식, 자극적인 성문화의 날부러짐, 왜곡된 성인식과 이중적 성윤리 잣대 등등.

그러나 성폭력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저것이 이것과 연결된다고 선불리 단언내릴 수 없는 것들이 그 상황 자체와 가해자 혹은 피해자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근친성폭력의 경우가 그러하다. 문제는 그 어떠한 문헌에서도 가해자의 과거와 현재 혹은 심리적 상태를 철저히 탐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껏 인구학적 정보가 전부이다.

우리는 인간이 무엇으로 인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지를 추적해 낼 수 있는 길잡이를 거시와 미시의 양 측면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생물학적이거나(이건 결코 아니지만) 전적으로 사회적인 그 무엇이 라고 종결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가해자를 연구해야만 성폭력 발생을 근절시킬 수 있는 여러 해결책 가운데 굵다란 실마리 하나를 거머쥘 수 있으며 그것도 이제는 더이상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내리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 무엇으로 인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지를 추적해 낼 수 있는 길잡이를 거시와 미시의 양 측면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생물학적이거나(이건 결코 아니지만) 전적으로 사회적인 그 무엇이 라고 종결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가해자를 연구해야만 성폭력 발생을 근절시킬 수 있는 여러 해결책 가운데 굵다란 실마리 하나를 거머쥘 수 있으며 그것도 이제는 더이상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내리게 된 것이다.

조사연구부는 앞으로 4회에 걸쳐 가해자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시각정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문헌 가운데 가해자 관련 연구에 도움받을 만한 것이 없어 우선 다른 나라의 것을 검토할 것이다. 다음은 시리즈로 연재될 각 회별 주제이다.

- 1회. 성폭력 발생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이론적 접근
- 2회. 남성의 폭력성과 성폭력
- 3회. 가해자의 개인사에 대한 이해
- 4회.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소개합니다 여성학 소모임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상담소내 여성학 모임이 드디어 출범(?!), 어느새 두번째 모임을 마무리하였다. 여성학에 대한 공부하고 싶다는 자발적인 의지아래 여성학 모임에 대한 제안이 받아들여져 든든한 상담소내 소모임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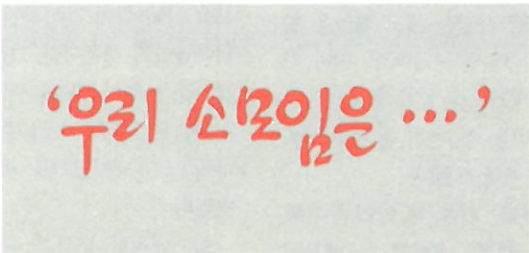
상담소의 파수꾼 이경미 선생님을 필두로 현재 이 모임에는 나눔이 정진욱, 이진희, 이성제, 최성호, 지킴이 이해진, 정금나, 야간간사 김언정이 활동하고 있다. 첫시간과 둘째 시간에는 “사회과학으로서의 여성학 방법론”(조형, 1991)과 “여성학과 한국 사회학의 변화”(조순경, 1992) 두 논문을 읽고 여성학의 학문적 특성과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억

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경험들을 나누는 알찬 시간들을 가졌다.

앞으로도 이 모임에서는 여성학의 이론적 공부를 바탕으로 여성학적 시각을 정립함과 동시에 현재의 성폭력 현상이 일어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올바른 성문화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을 해 나갈 예정이다.

모임시간 및 장소는 격주로 월요일 6시 30분 상담소이며 상담원, 지킴이, 나눔이를 비롯 상담소 식구라면 누구나 환영이니 관심있으신 분은 이경미 선생님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리/김언정



설악이 내게 준 건...

안혜성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이제 서른 하나가 됐다.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을까? 선배들을 만나면, 아직도 늘 어린아이 같이만 느껴지는데... 세월과 씨름하느라 서른을 훌쩍 넘어버린 것도 잊어버렸나보다. 후훗. 누구나 그렇듯이 나 역시 서른 고개를 어렵게 어렵게 넘어온 것 같다. 그동안 나를 찾기 위한 그 힘든 과정을 무사히 잘 넘겨왔기에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에게 선물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슨 선물을 줘야 내가 가장 기뻐할까? 평상시에 하는 것 말고 무언가 특별한 것을 줘야 고집 세고 잘난척하기 좋아하는 내가 기뻐할텐데.. 곰곰히 생각해본 결과, '무작정 떠나기'를 선물하기로 했다. 아무데나. 아무데나? 하고 머리를 가웃거리다 생각난 곳은 바로 설악산. 그래. 가자. 아, 얼마나 오래동안 설악을 그곳에 그냥 두고서 이 험한 세상과 씨름하며 꿈꿨던가.

95년 12월 28일. 그 날은 내가 난생 처음으로 혼자서 여행을 떠난 날이다. 사실 혼자라는 것이 내심 걱정이 안된 건 아니다. 그래서 친구와 후배들한테 같이 가자고 권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시간이 맞지 않았다. 결국 혼자 떠나게 되자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래도 걸으려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래, 나 잘 갔다올게" 하는 인사말을 남기고 혼자 길을 떠났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떠남은 가벼움이다. 가벼움은 왜 기분을 좋게 만들까? 그건 아마도 자유의 냄새 때문일거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간은 모순되게도 '소속과 사랑의 욕구'와 '자유'의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던가.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행은 이 두가지 욕구를 다 충족시켜준다. 떠남은 자유를 주고 떠남속에서 내가 속해있던 곳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그 소속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니까.

몇 년 전에 버르고 버르다 산 빨강고 파란 배낭을 메고 설악을 향했다. 버스 안에서 조금 졸다보니 벌써 백담사 입구. 설악을 많이 찾아왔었지만, 백담사 길은 초행이라 행여나 정거장을 놓칠까 노심초사, 안절부절, 엉덩이가 들썩들썩. 게다가 혼자라는 걸 괜히 혼자 의식해서였을까? 웬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 쑥스러웠다.

버스에서 내려 짐칸에서 배낭을 끌어내렸다. '아휴, 왜 이리 무거워. 괜히 팬티며 양말이며 많이 넣었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나 때문에 차가 지체된다는 생각에 괜히 운전수아저씨와 승객들 눈치가 보여 얼굴이 빨갱게 상기되어가며 겨우 배낭을 끄집어냈다. 떠나가는 차

뒷쪽지를 바라보면서 내 속에 들어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 길들여진 여자다움'에 새삼 화가 났다. '배낭 좀 꺼내는 게 뭐가 그리 미안하다고 허둥졌을까? 바보 왜 그래? 좀 더 뻔뻔해질 필요가 있는 거 아냐?' 다음부터는 더 뻔뻔해져야지 하는 다짐을 하고서야 배낭을 추스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5시가 훨씬 넘어 있었다. 아, 산자락에만 와 있어도 이렇게 좋은데... 설악 네 품은 늘 이렇게 파스하구나. 애초엔 백담사 입구에 도착해서 백담산장까지 갈 계획이었지만 한겨울 짧은 해가 벌써 기울어 두시간 넘게 밤 산행 할 생각을 하니 괜시리 겁이 나기 시작했다. '민박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지. 뭐.'

그런데 이게 웬 천사? 40대초반의 아저씨가 다가와 행선지를 묻더니 "나도 백담산장까지 가는데..". 하는 게 아닌가. 난 "아이쿠 잘됐어요" 하며 먼저 동행을 제안했다. 재미있는 건 아저씨 천사와 몇마디 나누는 사이 머리속으로 무수히 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났다는 점이다. 아저씨의 걸모습을 휘익 살펴보니 인상(특히 눈빛)이나 옷차림이 나쁜 사람 같아보이지는 않는데. 하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얼굴에 써 놓고 다니나? 몇 초사이에 아저씨는 천사와 악마 두얼굴로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나는 결국 설악산을 믿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산행 경험을 통해 깊은 산에서는 나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고, 이 시간에 설악의 속살을 힘겹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험악한 사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정했다.

아저씨와 함께 산행을 하기로 하고서도 께름직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다. 속으로 계속 "똥창을거야. 혼자 보다는 낫잖아.(과연 그럴까?) 걱정하지마. 그렇게 따지면 세상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살겠어.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급소를 꼭 잡아댕겨버리는 거야"하고 다짐했다. 긴장감으로 무장하고 길을 걷고 있던 내 앞에 여자천사(천사도 남녀가 있나봐)가 나타나 말을 걸어왔다.

"혹 백담산장에 가세요?"

"네, 그런데?"

여자 천사는 혼자서 백담산장까지 가려다 도저히 무서워서 그냥 내려오는 길이란다.

"그럼 잘됐네요 우리도 거기까지 가는데 같이 가요"

동그랗고 귀여운 얼굴에 약간 통통한 뺨의 아가씨 덕분에 나는 불안감과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역시 남자는 아무리 천사표라도 여자에게는 완전한 천사가 될 수 없는가 보다. 슬픈 세상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세상의 남자들이 모두 다 올바른 성 인식을 가지기 전까지는 말야.

두시간에 걸쳐 밤길을 걸어 백담산장에 도착했다. 우리 셋은 산장지기 아저씨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나의 미모 때문에? 그게 아니고 사실 나와 함께 걸어왔던 아저씨와 여자 친구가 이미 그전에 길을 잘 닦아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백담산장의 주인들과 아주 친한 사이인 것처럼 보였다. 우리 셋은 서로 가져온 술을 내놓고 그 산장지기 아저씨들은 '벌주', '매실주'니 하는 아주 귀한 술들을 내놓고 아주 맛나게 생긴 돼지고기를 페치카에서 구워와서 룰루랄라 수다를 떨면서 먹었다.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 오는데, 옆에 있는 화장실 칸에서 누군가 나오는 것 같았다. 산장지기 아저씨 중 한명이었다. 그는 술에 얼큰하게 취한 얼굴로 내게 다가와 어깨에

팔을 얹어놓았다. '에이, 이게 뭐야. 찼찼하게.' 그는 어깨에 팔을 얹어 놓은 채 어찌구 저찌구 수다를 떨었다. 그제서야 비로소 갑자기 정신이 번쩍났다. '아, 그래, 이게 성희롱이야. 욕할 가치도 없는 자식. 뭐하러 산에 들어와 있는거야.' 난 기분이 더러워져서 팔을 뿌리치고는 씩씩대며 산장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또 다시 화장실 앞에서 그를 만났다. 그의 입에서는 "어젯 밤에는 미안했어요"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난 "실수한 거 알면 됐어요. 정말 실망했어요"하고는 화장실 앞을 떠났다. '에이, 찼찼해. 좀 더 심하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백담 산장을 떠났다. 설악산에서의 첫 날을 이렇게 맞이하다니. 하지만 잊기로 했다. 나를 위해서. 어쨌든 난 내 의사를 표현했고, 그 즉시 풀어버렸으니까.

다음 날부터는 그런 더러운(?) 사건은 없었다. 다음날부터 나를 기다린 건 설악산의 섬세하면서도 강건한 아름다운 속살, 산 아래서 쓰린 가슴을 설악에서 풀어내고 있는 가벼운 인간들의 군상이었다. 새벽에 백담사 산신령님께 기도를 드리러 가던 20대 후반 여성의 쓸쓸한 뒷모습, 산을 떠나고 싶어하면서도 산아래에 정착하지 못하는 산장지기들, 일류대를 가겠다고 몇년째 대입을 준비해온 20대 후반의

고집센 남학생, 10년동안 직장을 26번이나 옮겨다니다 결국 소청 산장에 자기 보급자리를 잡은 30대 후반의 남자.

그들을 보면서 삶이 참 슬프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 그들의 삶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파왔다. 하지만 난 그 아픔을 다 껴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세찬 입김으로 내 몸을 사정없이 후려치던 그녀. 하얀 눈으로 치장하고는 뽀족뽀족한 수려한 모습을 당당히 내보이던 그녀. 끝없이 이어지는 능선을 자기 품에 안고서 그만큼의 깊이와 폭으로 인간을 다정히 안아주던 그녀. 그녀의 너른 가슴팍을 뛰어들어다니며 난 생명의 충일감과 겸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으로 혼자 떠나본 여행으로 난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비우게 됐을까? 20대를 '나를 찾기'라는 힘든 과정으로 보낸 나는 나이 서른 하나에 오른 설악에서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털어버렸을까? 글썄. 無라고 해야 옳겠지. 맞아. 그게 맞아. 아무것도 정리된 것 같지는 않지만 무언가 시원해진 느낌이 들었다. 설악이 내게 준 건 마음 속의 여백이었다. 그 여유로움으로 다시 세상과 맞설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므로.

몸이야기

웬 피? 생리는 끝났는데...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속옷에 묻어있는 핏자국을 발견한다면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개개인에 따라서는 이러한 흔적을 매달 생리를 하기 때문에 어찌다가 적은 양의 피가 나올수도 있으려니 하고 느긋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게 무슨 징조일까 하고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도 선불리 병원에 가지 못하고 속으로 끔끔 앓기도 한다.

사실상 여성이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아주 적은 양이라도 출혈이 있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징조라고 한다. 바로 자궁의 질병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자궁과 연관된 질병은 나이가 많이 드시고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나 볼 수 있는 병이라고 치부되었지만 최근에는 각종 공해가 빈발하고 인체에 유해한 식품환경이 증가, 복잡한 생활형태의 급변성에 따른 스트레스등이 늘어났기 때문에 20대 여성, 심지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여성에게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출혈은 40대 이후의 중년여성에게는 암과 관련이 있으며 20-30대 젊은 층에게는 자궁근종, 물혹, 자궁내막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월경 때가 아닌데도 부정기적인 출혈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출혈이 반드시 자궁암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암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한다.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출혈은 임신할 나이가 넘은 여성이나 임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춘기 소녀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성호르몬 대사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증상이 더욱 뚜렷한데, 한달에 한번 생리시에 떨어져 나와야 할 자궁내막이 호르몬 대사의 불안정으로 시도때도 없이 흐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피를 조금씩이지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흘리게 되면 기운이 없고, 지혈이 좀처럼 되지 않는다.

임산부의 경우 출혈이 있다는 것은 유산의 징후나 자궁의 임신등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안정을 취한 뒤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고 한다. 또한, 출혈이 있을 때는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치유하고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건강에 필수적이라 한다.

자신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어떤 상황

이든 완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일단 병원에 가기 전에 부정기적으로 출혈하... 시기와 상황, 월경주기, 월경일자등을 기록한 메모를 들고 가는 것이... 데 매우 도움이 된다. 구체적인... 혀진다면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하겠지만 전문의들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개개인 여성들의 정신적인 안정이다. 우리 가족의 구조속에서 어머니, 아내들은 다른 구성원들의 병은 지성스럽게 챙기게 되지만 자신의 병은 소홀히하기 쉽다. 막중한 가사일에 시달리느라 자신을 추스릴 여유를 갖기 어렵겠지만 자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돌봐야 한다. 또한, 평상시 어떤 일에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활, 신념등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산부인과에서는 자궁속에 물혹등이 파악되더라도 의사에 따라서는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요법을 처치한다. 심한 증상일때는 자궁적출도 실시하게 되며, 자궁내막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자궁속의 내용물들을 없애고 본래의 정상적인 리듬을 갖도록 유도한다.

한방에서는 약재등을 이용해 불안정한 자궁부의 기운을 복돋아주고 기혈을 보충해 주는 치료를 하는데, 미혼여성을 포함한 일부여성들에게는 물리적인 수술을 받는 방법을 피하고 임신을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되고 있기도 하다.

니눔터/홍은정기자

'돌로레스 클레이본'을 보고

장윤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총무)

“때론 악녀가 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다.”

알콜중독인 남편도 이해했고, 장작으로 자신을 때리는 남편도 용납할 수 있었던 돌로레스(캐시 베이츠)분, 하지만 딸 셀리나(제니퍼 제이슨 리 분)를 성추행한 남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돌로레스에게 베라(जू디 파피트 분)가 들려준 말이다.

돌로레스에게 있어서 삶의 희망인 딸 셀리나가 아버지로부터 더 이상 성추행을 당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악녀가 되는 것이었다.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날 돌로레스는 남편을 살해한다.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딸을 지키려는 돌로레스 나름 대로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엄마가 아버지로부터의 성추행에서 딸을 지키는 방법이 악녀가 되는 길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몹시 우울해진다.

어느 누가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에게 폭력을 사용할 권리를 주었던 말인가? 어느 누가 아버지에게 자식을 성추행할 권리를 주었던 말인가? 영화를 보는 동안 내내 상담소에 상담을 해 오는 내담자들의 얼굴이, 또 상담 내용이 스치고 지나 갔다. 무지막지한 아내구타와 말도 안되는 딸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은 영화속이나 등장하는 독특한 소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돌로레스의 해결 방법이 살인이었다는 것 때문에 돌로레스에 대한 구타나 셀리나에 대한 성추행이 가볍게 관객에게 다가가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웠다. 오히려 돌로레스의 살인행위에 대한 윤리적, 법적인 물음은 접어두고 남편으로부터의 구타가 아버지로부터의 성폭력이 얼마만큼 그 개인들의 삶을 짓밟는지를, 왜 살인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셀리나는 아버지로부터의 성추행 피해사실은 망각하고 엄마가 아버지를 살해했는지도 모른다는 원망을 안은채 돌로레스의 소원대로 섬을 떠난다. 그러나 15년만에 또 다른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엄마를 찾아온 유능한 기자 셀리나의 뒷모습에는 여러종류의 신경안정제와 술을 의지하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성폭력 후유증이 있을뿐이었다. 세월이

악이라는, 세월이 가면 잊혀진다는 진리는 성폭력에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다.

셀리나가 아버지로부터의 성추행 기억을 찾아내는 배위의 영상에서는 셀리나의 고통이 너무나 잘 느껴졌다. 성추행 사실을 망각에서 꺼집어내어 맞서면서 셀리나는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악녀가 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수단일 수 밖에 없었던 돌로레스의 슬픈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돌로레스와 셀리나 모녀는 15년만에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셀리나는 성폭력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극적으로 영화답게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는 수 많은 아내 구타와 성폭력 피해자들은 돌로레스처럼 분노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다. 아내 구타와 성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오히려 피해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쉬운 점이 많지만 아주 오래간만에 보는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루면서 재미까지 갖춘 영화였다. 특히 안타까웠던 것은 영화 전편에 걸친 캐시 베이츠와 제니퍼 제이슨 리의 훌륭한 연기가 영화의 맹점을 감추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돌로레스의 행동을 영화에서나 있을 수 있는 모성애로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과 근친 성폭력이라는 주제가 영화의 극적 효과를 노린 비현실적인 소재인 것처럼 관객들이 받아들일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내구타, 근친 성폭력 문제는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소재가 아니다. 늘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단순한 가정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행위인 사회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돌로레스처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문제로 만들어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닌 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법행위로 인정하여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서 같이 해결해야만 한다.

영화관을 나서 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부는 거리를 걸으면서 악녀가 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수단일 수 있는 세상을 꿈꿔 보았다.

여성계 소식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 선정

세계화추진위원회는 21세기를 앞두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보는 근본틀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 아래 여성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확대 및 내실화
2. 방과후 아동지도 제도 도입
3. 학교급식의 전면확대
4. 여성의 공직참여비율 제고목표
5. 공기업 신규 채용시 여성고용 인센티브 도입
6.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체계 확립
7. 여성인력 양성체계 확충, 개선
8. 여성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
9. 여성발전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10.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

◆ 한국여성민우회

직장내 성희롱이나 시간제·임시직고용 등의 간접차별조항으로 문제가 됐던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 민우회가 주축이 되어 발족한 '고용평등추진본부'에서는 30대 재벌에 대한 고용평등지수 산출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이밖에도 '미인대회 중계 중지를 요구하는 토론회'를 5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의 전화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 입법운동을 8년도부터 준비해 왔다. 올해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 각 당에서 총선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은 2월 24일 3·1절기념 정대협5주년토론회를 개최하여 일본의 특별법제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3월에는 UN인권위원회에 본문제를 상정하는 한편, 3월 28~29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네째주 월요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 교실을 실시한다.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성폭력예방교육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051)817-8222/8228)

◆ 전주성폭력예방센터

3월 4일~15일까지 성폭력상담원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문의/0652)83-9647, 87-1658)

◆ 가족과 성상담소

3월 28일로 개소 1주년을 맞는 가족과 성상담소는 성폭력상담소로 정식 등록허가를 마치고 성폭력상담을 받기위한 상담원 교육을 2월에 실시했다. 일반상담원 교육은 4월부터 있을 예정이다. (문의/02)643-3606)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협에서는 15대 총선을 맞아 세계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중요한 목표로 세우고 있다. 한편, 성차별 개선을 위한 매스컴 모니터링 사업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난해 여성정책 10대과제의 하나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빠른 기간내 제정된 만큼 문제점도 여럿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 조항에서도 북경여성회의때 채택된 성희롱의 규제방안은 전혀 언급이 없는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여연에서는 정치참여의 확대뿐 아니라, 이러한 여성10대과제의 개정작업을 위해 광범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나눔터 / 이수지기자

알림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나눔터 회원

김은홍, 유소영, 강지원

새로운 후원회원

양성애

신규회원

장연집, 윤 경, 이윤성, 김철기, 정명호, 문해란, 손경자, 이숙경, 김언정, 하은주, 정성광, 이혜진

기부금 내주신분

양성애, 심창교

당신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성폭력-(근친강간, 강간,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등) 이제 밝힐 때입니다.

상처입은 당신,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화하시면, 우리는 당신의 상처를 소독하고
약 발라 치료할 것 입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상담시간 :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상담전화 : 02)529-4271~2
긴급전화 : 02)578-1888(24시간 내내, 일·공휴일 제외)
방문상담 : 화~목 오후2시~5시
편지상담 : 언제나

열린터로 오십시오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따로, 다같이 상담을 받으며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과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마음의 기술을 배웁니다.
(CR 훈련, 감수성/인간관계훈련, 비디오감상, 독서토론 등)
열린터에 오시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드립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열린터로 오는 길
먼저 성폭력상담소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주십시오.
번거롭지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신도 도울 수 있습니다.

상담원: 일정한 교육(여성학/상담원)을 수료한 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눔터: 사무보조, 자료정리, 번역등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지킴이: 긴급한 피해자에게 상담원, 병원, 경찰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증: 사무나 여러 활동에 필요한 물품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후원: 작은 정성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시면 소식지<나눔터> 외에 여러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고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비는 피해 여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계간소식지 <나눔터>와도 함께 하세요.

후원회원이 되시거나, 1년 구독료 5천원이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입금하시고 전화해 주세요.
온라인 구독번호
국민은행: 009-01-1176-632 (수신자:성폭력상담소)
농협: 037-01-194301 (수신자:성폭력상담소)

우리 상담소의 심볼 유는 '여성들의 자매애'를 상징합니다

본 상담소 심볼인 유는 여성을 나타내는 우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에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볼의 색깔은 '여성'과 '자매애'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서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의 상담활동을 통해 아픔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하는데 큰 뜻을 둔 단체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모든 상담활동,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의 교육활동, 소식지·교육자료 연구물 발행 등의 홍보 출판 활동, 사례분석·실태조사 자료의 연구·수집 등의 조사연구 활동 나라 안팎의 기관이나 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상담원 활동과 나눔이 지킨이 활동 후원회원 나눔터 회원, 기증 등의 방법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작은 실천과 큰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 예방 활동으로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이사

강기원 민병진 박금자 오세민 윤장숙 이종길 정동철 최영애 추애주

감사

배자하/세우사 차재능/회계사

전문위원

상담
기독교화/서광선 심리학 박애선·이창호·조혜자·이혜성·아동학/장연집 여성학/한정자

법률

김시·김옥철 변호/한인섭 변호사/강기원·김삼화·박찬운·신기남·이명숙·이상경·이종길·이향아·임종민·장재호·장철우·정갑성·조영환·황산성

의료

가정의학/김종구 법의학/강신용·권일윤·문국진·서중석·이경룡·이윤성·이원태·최영석·황적준·신부영/김주필·김현식·남소자·문영규·민영기·박경자·박금자·박소현·박양실·박종민·안영옥·윤경·이경희·이길녀·이옥주·임용택·한중수·성형외과/정영덕·소아정신과/곽영숙·최보문·신경정신과/김광일·김종순·김병후·김정인·남정현·소은희·양창순·윤애리·이나미·정동철·최진숙·외과/오세민·임상병리과/장정옥·문혜란·이재숙

연구

교육학/김인수 사회학/김종호·심영희·조혜·여성학/이재경·장필화·조순경·조주현·인류학/정병호·철학/이상화·정대현·통계학/이용재

홍보·출판

동시통역/김지연 사회·박진숙 시사·민병진·최정현·신문방송학/김응숙·최선열·안문인·김철기·전여옥·조성숙·여성학/박혜란·오숙희·연국인/김지숙·손숙·출판/김학중·이인자

재정

고석주·김미주·김우혜·문선경·민병진·박영희·윤장숙·최조자·추애주

대표이사

● 박금자
소장 ● 최영애
부소장 ● 장영복